

### 광주교육청, 고교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1인당 15만6천원...제로페이 모바일 화폐 지급

광주시교육청은 21일 고등학교 여학생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제로페이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학생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시교육청이 지난 2021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 광주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여학생 1만8300여 명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하면 승인을 통해 지원금을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

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만3000원씩 12개월간 총 15만6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택, 패밀리타운, 비플래이 중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할 수 있다. 학생 생리용품 지원 업무 담당자가 승인하면, 2~3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시교육청 누리집 카드뉴스,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주 기자

### 서구, 1인가구 43%...정서 돌봄 '츄츄'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 '전문상담관제' 운영

서구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관제를 도입했다. 서구는 관내 13만2000여 세대 중 1인 가구가 43%(5006여 세대)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고립과 정서적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해 '외로운 삶, 전문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문상담관제'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등 경력단절 전문가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우울 검사와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병원 치료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이웃'의 역할로 관계 회복에 집중하며 대상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 특히 서구는 돌봄지원과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복지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각 부서의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구는 올해 1분기 운영 결과 총 362명의 취약계층에게 우울 척도 검사(CES-D, SGDS)를 실시했으며, 이 중 고위험군 12명을 포함한 137명에게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이들에게 '다음건강주치의'의 전문적 관리 아래 전화·대면상담, 병원 치료 연계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조선주 기자

### 북구, 노후 주방시설 개선 사업 추진

관내 일반음식점 60개소 대상...최대 85만 원

북구는 지역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노후 주방 시설 위생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음식점 주방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주방 화재 발생 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반음식점 주방 후드와 환풍기, 튀김기 등 환기·조리 시설, 식재료 보관 냉장고 청소 등 비용을 업

소당 최대 85만원까지 지원한다. 올바른 식재료 보관과 정리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병행해 음식점 사업주의 위생 의식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북구 소재 일반음식점 60개소다. 대상자 선정 이후 오는 6월부터 청소 전문 업체가 순차적으로 현장에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 '도시의 기억을 담다' 동구, 옛 사진 공모전

내달 15일까지...노포·장인의 삶 등 4개 분야

동구는 '동구, 도시의 기억을 담다'를 주제로 옛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발간하는 책자 '도시여행자를 위한 재생 공간 산책'에 담긴 사진이 공모 대상이다. 광주극장 등 오래된 문화공간과 노포, 종장로 혼수의 거리·도깨비골목 등 지역 장인들의 삶, 대인애술시장·김넛과 켈러리 등 지역 예술 생태계의 활기, 인체의 거리 산

업과 인물 등 4개 분야 관련 장소와 추억이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다음달 1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임택 구청장은 "이번 책자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의 삶이 녹아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며 "주민들에게 깊은 공감과 자긍심을 안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 호남권생물자원관, 고객만족도 '우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 등급' 획득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7.3점을 받아 평가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공공기관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고객 만족 수준을 측정해 공표하고 있다. 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반적

만족도 97.4점 ▲서비스품질 97.6점 ▲사회적 책임 97.2점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총괄 97.3점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4년 한 해 동안 심·연안 생물자원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자체 진단 및 개선을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독포·김근호 기자

# HDC현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 법원 "청구 기각"...현산 "항소,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관사 김국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와 관련, "이번 판결은 고객과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된다"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재차 다룰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신규 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기각시 건설 사업자로써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날 본안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또 '부실시공' 혐의와 별개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에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하면서 '과징금 4억 원'으로 변경됐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는 부실시공·부당이익을 제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인한 4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23년 12월 19일 원고(HDC현대산업개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기 기자



순천경찰-농협, 피싱범죄 예방 길거리 캠페인 순천경찰서는 21일 아침 순천조례사거리에서 순천농협과 합동으로 피싱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관 및 농협직원 70여명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주요 범죄유형과 피해예방 요령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순천=조순희 기자

###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10개 직종 327명 채용

조리사·늘봄실무사 등...28일~5월 2일 온라인 원서 접수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올해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했다. 이번 채용규모는 10개 직종 총 327명이다. 이 중 ▲조리사 33명 ▲특수학교(급)특수교육실무사 33명 ▲특수학교(급)돌봄교실강사 1명 ▲돌봄전담사 24명(전일제 17명, 시간제 7명) ▲늘봄실무사 4명 ▲학교폭력상담지

원센터 전문상담사 1명 등 6개 직종 96명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또 ▲조리원 207명 ▲미화원 20명 ▲특수학교(급)통학차량실무사 3명 ▲수련지도사 1명 등 4개 직종 231명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8일부터 5월 2

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https://edurecruit.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직종별 응시 자격요건 및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gen.go.kr) '시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교육감은 "이번 채용으로 필요한 인력이 적절히 충원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 전남 청각·언어장애 2만848명...농아노인복지센터 만족도 높아

복지관 등 이용 어려운 농아어르신 사회 참여 활동 지원

전남도가 청각·언어장애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농아어르신의 여가와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아노인복지센터가 농아어르신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등록 장애인인 13만4023명이다. 이중 청각·언어 장애인인 2만 848명

(15.5%)이며, 65세 이상이 80%에 해당하는 1만6469명을 차지하고 있다. 순천, 광양 등 동부권에는 65세 이상 농아어르신 4천797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 목포지역에 전남센터를 개소, 1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농아어르신의 참여와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호 기자

농아노인복지센터 이용 대상은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1주일에 5일간 센터를 방문해 수어 배우기, 그림그리기, 한글 배우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이에 청각·언어 장애인을 배려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설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2019년 순천에 이어 지난해 광양에도 개소해 운영 중이다. /김 호 기자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악취관리지역 연중 실태조사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산단 등 3곳의 악취물질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악취 실태조사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삼일지원비축산업단지, 여수화양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복합악취를 비롯해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지정악취물질을 포함한 23종을 새벽, 주간, 야간 시간대별로 시료 채취해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2024년 악취관리지역 대기질 23개 지점과 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대기질 1개 지점과 3개 사업장에서 복합악취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련 사업장 시설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2023년 조사 결과 기준 초과 대기질 3개 지점과 8개 사업장보다 줄어든 것이다. 조사 결과는 환경부에 보고되며,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 화순경찰 "평온 일상 위해 최선"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화순경찰서는 21일 경찰서 2층 만연홀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각 과장과 계·팀장, 지역경찰관서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12신고 분석을 통해 5월 치안수요를 예측하고 범행략설 및 농번기철을 대비해 각 기능별 주요 추진 업무와 지역별 지역경찰관서의 주요 현안,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기능별 협조 사항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에 대해 강구했다. 주요 안건으로 불법길·절도 및 교통사고 예방방안과 불법축제 등 지역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유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농사일과 야외 나들이 등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빈집털이·농산물 절도를 예방하기 위한 가시적인 순찰과 사례 홍보 등을 펼쳐 선제적으로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도로시설정비, 교통안전교육, 교통순찰활동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불안감 해소를 해소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안심하는 평온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산구,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추진

2시간까지 요금 1000원...오후 7시~오전 8시까지 무료

광산구가 차량 소통과 시민 안전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계획을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계획은 주정차 위반 차량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천원 공영주차장 한시 운영 △공영주차장 야간시간 무료 이용 △캠핑카 주차장 장기권 주차 요금 할인이다. '천원 공영주차장 한시 운영'은 상가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필

요한 시민들에게 2시간까지 주차 요금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주중정역 뒤 △광산구 무진로(호남병원 옆)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 △운남동 공영주차장 △수완동행정복지센터 옆 △수완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하남3지구 주차타워 1·2에서도 1000원으로 2시간 이용할 수 있다.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 이후 15분마다 100원 부과되고, 2시간이 초과하면 현행요금인 15분마다 급지별 300~400원이 부과된다. 주차 요금

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용자가 적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무료 개방해 공영주차장 이용 장벽을 완화한다.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산로 제2공영주차장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 △운남동 공영주차장 △하남3지구 주차타워 1·2 △비아5일시장 제2공영주차장 △수완동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 8개소를 야간 무료개방한다. 또한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광주여대 캠핑카 주차장과 광주MBC 송신소 임시공영주차장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 장기 주차권 선결제 금액을 월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다. 주차요금 정사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5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